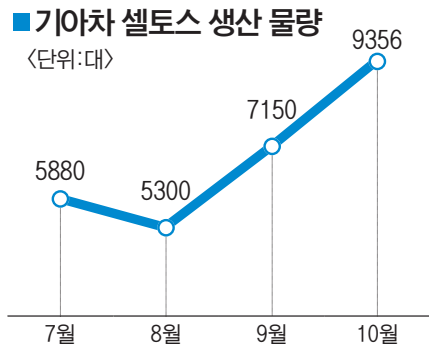


# 셀토스, 인기 몰러 나간다~

### 기아차 광주공장 출시 100여일만에 2만7686대 생산 젊은 감각·경제성·실용성 2030 선호...SUV 새 강자 부상

광주에서 만드는 기아차 '셀토스'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효율, 넓은 실내공간 등이 어우러져 젊은 감각과 경제성, 실용성을 추구하는 젊은층의 마음을 사로잡아 단숨에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절대강자로 떠올랐다.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출시한 셀토스는 10월까지 총 2만7686대를 생산했다. 내수 2만2074대, 수출 5612대다. 월별로는 7월 5880대, 8월 5300대, 9월 7150대, 10월 9356대를 생산했다.

국내 판매는 출시하자마자 3개월 연속 소형SUV 1위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7월 3335대, 8·9월 각각 6109대, 10월 5511대를 기록했다.

특히, 내수 판매에 이어 조만간 해외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광주공장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소형 SUV 셀토스'는 기존 SUV가 지닌 레저형 차량 개념에 쾌적한 도심주행 능력이 가미돼 출·퇴근과 쇼핑,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셀토스의 인기비결은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외관 ▲깔끔하고 공들인 실내 ▲소형SUV를 잇게 만드는 동급 최대 전장 ▲높은 주행 성능과 연비효율 ▲남부러울 것 없이 짙은 첨단 편의사양 등이 꼽힌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는 디자인과 상품성 부문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자랑한다"면서 "특히 전방충돌방지보조·차로유지보조 등 첨단 편의사양을 기본화해 '가성비'를 넘어 '가심(心)비'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동급 최대 크기와 공간성을 기반으로 한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과 고급스런 실내 디자인은 출시하자마자 남심(男心)을 흔 들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아차는 여성(女心)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여성 고객을 위한 셀토스만의 특화 서비스인 '어메이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신차 구매 후 3개월 내 최초 입고 시 전반적인 차량 점검 및 첨단 안전 사양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퍼스트 케어 서비스', 여성 고객 대상으로 전문요원이 일대일 방문해 차량 점검 및 주요 기능을 설명해주는 '레이디 케어 서비스', 차량 운행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출고 1년간 5회 긴급출동 및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케어 서비스'로 구성됐다.

생산과 판매 호조는 250여곳에 달하는 지역 협력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광주와 전남 곡성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 100%를 '셀토스' 신차용 타이어(OE)로 납품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는 최첨단 안전 사양과 기존 대형 고급차에서 볼 수 있던 편의사양 등이 적용된 뛰어난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고객들에게도 어필되면서 성별을 가리지 않는 엔트리카(생애 첫 차)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기아차 '셀토스'

## 3분기 자동차 수출단가 또 역대 최고

### SUV·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1957만원...전년보다 1000달러 올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3분기 자동차 수출단가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3분기 자동차 수출 단가는 평균 1만6384달러로, 처음으로 1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194.22원)을 적용하면 원화로 1957만원으로, 2000만원에 육박한 셈이다.

올해 들어 SUV와 친환경차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수출단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3분기 수출물량은 53만563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3466대)보다 조금 줄었지만 단가는 1만5117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 올랐다.

수출단가는 작년 1분기 1만5496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3분기 1만5252달러로 소폭 내려갔다가 작년 4분기 1만5676달러로 반등했다. 이어 올해 1분기 1만5784달러, 2분기 1만5824달러로 계속 상승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평균은 1만5979달러로, 1만6000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월별로 6월(1만6035달러) 이후로는 1만6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으로 1만6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10월)에도 수출액 증가율(24.2%)이 수출대수 증가율(24.1%)보다 높았다.

연간 자동차 수출단가는 2009년 1만692달러에 그쳤으나 이후 2010년 1만2119달러, 2011년 1만3596달러, 2013년 1만4543달러, 2017년 1만5147달러 등으로 올랐다.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 물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액에는 영향을 덜 받았다.

수출물량은 2012년 317만634대에서 2018년 244만9651대로 22.7% 감소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436억3000만달러에서 377억2000만달러로 13.5%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수출물량이 177만691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75만9011대)과 비슷한 수준인데 수출액은 268억9000만달러에서 283억9000만달러로 5.6%나 늘었다. /연합뉴스

## 기아차, 청년 사회적기업가 재도전 지원

### 22일까지 참가자 접수

기아자동차가 카세이어링체 그린카, 비영리단체(NGO)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한다.

기아차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 '굿 모빌리티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춘, 내·일을 그리다' 4기 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1~3기에선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초기 사업화를 지원했고, 4기에선 다시 창업을 할 기반을 마련해주는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재도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개월간 참가팀당 최대 2000만원, 평균 1500만원의 사업방향 전환비용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청춘, 내·일을 그리다' 4기 참가 서류접수는 22일까지다.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으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

## 고속버스터 즐기는 최신영화·게임

### 금호고속-KT 가상현실 서비스 협약...프리미엄 버스 이달말 시범 운영

버스 안에서 게임과 최신영화, 가상현실(VR) 영상 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금호고속은 18일 서울 서종로 광화문빌딩 East에서 KT와 '프리미엄 고속버스 가상현실(VR)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금호고속 프리미엄 버스 내에서 각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KT Super VR'을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VR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서울-광주' 노선을 오가는 금호고속 프리미엄 고속버스 탑승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차량별로 10명의 고객에 한해 서비스를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차량은 매일 2회 운행하며, 시범 운영이 끝난 후에는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추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은 "기존 프리미엄 고속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추가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고속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고속 이송호 전무(오른쪽)와 KT 뉴미디어사업단 김훈배 단장(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고속 제공>

**방치된 묘지 70%(추정)**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